

받을 돈은 안받고 돈 없다는 광주교육청

소유 땅 1만5505㎡ 시·구청 도로 무단 점용해도 방치 학교용지부담금 1075억 광주시에 징수 계획조차 없어

광주시교육청이 '돈이 없다'면서도 받아야 할 돈조차 제대로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이 어려워 남은 교육 시설 개선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수익을 재산을 활용하거나 받을 돈을 제대로 받아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돈 없다더니 땅 사용료도 안받아=7일 유정심 광주시의회 의원이 내놓은 '광주시교육청 공유재산 점·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37곳의 교육청 소유 땅(1만5505㎡)이 별도 사용료도 없이 광주시와 동구

등 5개 자치구에 의해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해당 부지 공시지가도 무려 33억5700만원에 달한다. 공시지가를 확인하기 힘든 동구청 점용 부지(5290㎡)를 포함할 경우 매각 수익만 줄잡아 50억원이 넘는다는 게 유 의원 설명이다. 광주지역 90개 중학교 1~3학년 학생들(5만1470명)의 한 달 급식비(40억)를 낼 수 있는 금액이다.

광주시교육청의 열악한 재정난을 감안하면 관련 부지를 매각하거나 사용료 징수 방안을 마련,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유 의원

지적이다. 하지만 매각은 고사하고 사용료 징수를 위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면서 일선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돈 없어도...줄 때까지 기다려=학교용지부담금도 적극적으로 받아내려는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신설 학교 용지 금액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주는 제도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른바 학교용지법)에 명시돼 있다.

교육청이 광주시에서 받은 학교용지부담금만 1075억. 지난 1999년부터 쌓인 금액이지만 구체적 확보 계획은 없는 상태다. 광주시가 '2월까지 관련 조례를 만들

어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여태껏 지키지 않아 '징수'를 위한 움직임도 적극적이지 않다. 감사원도 최근 이 같은 문제점으로 일반 재정사업에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한 바 있다.

광주시가 지난 4월 누리과정과 연계, 교육청에 내려줘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부만 지급했을 때도 '갈등'으로 비쳐질까 '반발'보다는 염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유정심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소극적 행정은 폭염 속 냉방기가 고장날까 걱정하는 학교, 겨울철에 석유 난로 때문에 문을 열고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 비 새는 체육관 문제로 고민하는 현장을 외면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만원 '5·18 북한군' 주장 추가 유포댄 1회 200만원" 법원, 금전 배상 명령

5·18민주화운동을 끊임없이 왜곡해온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과 지만원(74)씨에 게 5·18 관련 허위 주장을 또다시 유포하면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법원이 명령했다. 1차례 어길때마다 20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7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1부(김동규 부장판사)는 5월 단체 등이 제기한 뉴스타운 호의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확정 신청을 받아들이고, 지씨와 뉴스타운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뉴스타운이 발행한 호의(인쇄물) 1, 2, 3호 발행과 배포, 호의와 비슷한 내용의 인터넷 게시 등을 금지하고 지씨 등이 이를 어기면, 5·18기념재단 대표이사,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자회)대표, 5·18 당사자(시민) 2인 등 소송 당사자에게 각각 1회당 20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지씨와 뉴스타운 측은 제 3자로하여 호의 발행과 인터넷 게시를 하게 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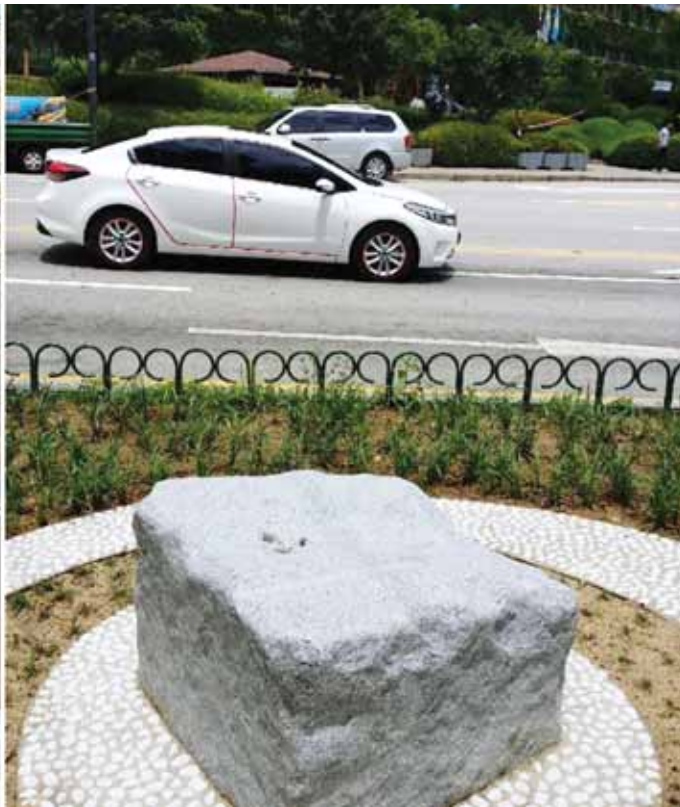
재판부는 지난해 가처분 결정과 마찬가지로 뉴스타운 보도 내용과 지씨 주장은 5·18의 역사적·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고 참가자들에 대한 비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발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씨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1980년 5월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하는 광주시민 상당수는 5·18 당시 광주에 침투한 북한군 특수부대원, 5·18은 광주와 북한의 합작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7일 광주시 북구 보건소 앞 교통섬에 놓여 있던 말바우시장 '말' 조형물이 잠쪽같이 사라져 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은 지난 2월 말바우시장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말 조형물(왼쪽)과 이날 사라진 조형물 터.



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은 <광주시 북구 제공>

하룻밤새 사라진 말바우시장 '말 동상'

울 2월 400만원 들여 설치...CCTV 확인 안돼 범인 못찾아

"저희도 너무 황당하네요." 7일 오전 광주시 북구청 앞 교통섬을 지나 출근하던 한 구청직원은 눈을 의심했다. 우산동 말바우시장을 상징하며 교통섬 화단에 포호하며 서 있어야 할 '말' 모양의 조형물이 하룻밤 사이에 잠쪽같이 사라져서다.

이 직원은 조형물을 설치했던 부서에 알렸고, 담당 직원은 인근 CCTV를 확인했지만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범인'을 찾지 못했다. 북구는 돌받침 위에 20cm 깊이의 철근으로 고정돼 있는 말 조형물을 누

군가 고의로 흔들어 뽑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북구는 지난 2월 모두 34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말바우시장을 상징하는 '말' 형상의 조형물(길이 58cm·높이 60cm, 25kg)과 함께 무등산 입석대, 중외공원문화벨트 무지개다리,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등 북구 8경 중 4경을 교통섬 화단에 설치했다. 북구를 대표하는 유·무형 자산의 조형물을 교통섬에 설치해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특히 동으로 만들어진 말 조형물 제작

에만 모두 400만원이 들었고, 이 조형물을 본 말바우시장 상인들이 "시장 입구에도 설치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말바우시장은 '말'이라는 단어와 바위를 뜻하는 전라도 사투리 '바우'가 결합한 지명이다. 바위가 네모난 말과 같이 생겼다고 해 얻어진 지명이라는 설과 조선시대 의병장 김덕령 장군의 말 발자국이 찍힌 바위가 있다는 설 등 다양한 유래가 전해진다.

북구는 누군가 고철로 되팔기 위해 조형물을 훼손한 뒤 옮겨간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 달뜨기 08:24
해질 19:45 | 달지기 22:30

오후 한때 소나기

구름이 많고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19/27	보성	17/25
목포	18/25	순천	19/26
여수	19/24	영광	18/26
나주	19/28	진도	18/24
완도	18/25	전주	18/27
구례	17/27	군산	17/25
강진	18/26	남원	18/26
해남	17/26	홍산도	16/22
장성	17/27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파고(m)	풍향	파고(m)	풍향
서해	남부	북~북동	0.5	북서~북	0.5
	남부	북~북동	0.5~1.0	북서~북	0.5~1.0
남해	서부	남서~서	0.5~1.0	남서~서	0.5
	남부	남서~서	0.5~1.5	남서~서	0.5~1.5
제주	서부	북서~북	1.0~1.5	북서~북동	0.5~1.5
	남부	북서~북	1.0~1.5	북서~북동	0.5~1.5

생활지수

주요	주의
식중독	보통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보통

물때

목표	밀물	썰물
	04:32	09:28
	16:33	21:41
여수	11:15	05:08
	23:49	17:14

주간 날씨

9(목)	10(금)	11(토)	12(일)	13(월)	14(화)	15(수)
☀	☀	☀	☁	☀	☀	☀
19/29	19/31	19/29	20/28	19/29	19/29	19/29

한숨 들린 '양림동 선교사 사택 철거'

광주기독병원 "잠정 중단"...남구, 보존가치 조사 의뢰

광주시 남구 양림동 광주기독병원 부지 내 '선교사 사택'이 철거 위기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났다.

7일 남구 남구에 따르면 이날 선교사 사택 소유주인 광주기독병원측 관계자는 남구청에서 최영호 남구청장과 김점기 남구의회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철거 공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기독병원측은 사택 내부를 고치고 구조물을 보강한 뒤 어린이집으로 활용해달라는 남구와 양림동 주민 요청에 대해, 병원 내부 의견수렴을 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기독병원 측이 병원 부지 내에 직장 어린이집을 지을 만한 마땅한 공간이 없어 사택을 허물고 어린이집을 지으려했다고 주장한데다, 해당 건물이 사유재산을 감안하면 원형 보존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기독병원에 있는 선교사 사택은 무려 7개 건물이어서 관할 구청조차 존재와 내력을 알지 못할 만큼 병원의 사유재산으로 관리돼왔다. 그러던 중 최근 병원에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내부 철거에 들어간 직후 인근 주민들에게서 보존 요구가 나왔다. 남구는 선교사 사택이 기독병원 측 사유재산임을 감안, 문화재청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보존 가치를 객관적으로 따져본 뒤 설득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형호기자 khh@

무안서 트럭 버스정류장 덮쳐 초등생 중태

무안의 한 도로에서 추돌사고가 난 트럭 2대 중 1대가 버스정류장을 충격해 초등학생 1명이 중태에 빠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7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3분께 무안군 일로읍 한 마을 입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이모(52)씨가 몰던 1t 트럭이 앞서가던 김모(31)씨의 1t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김씨의 트럭은 오른쪽 버스정류장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버스정류장에 있던 김모(13)군이 크게 다쳐 수술을 받고 있으며, 김군의 동생(10)과 두 차량 운전자도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다. 김군 형제는 이날 수업을 마치고 버스를 기다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과속방지턱에서 서행하던 김씨의 트럭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무안=임동현기자 idh@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증-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새 주인을 찾습니다

아름다운 펜션 카페 영업중!!

- 70~80년된 낫골, 소나무, 단풍나무, 황금공작편백,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경
잡종지 15,688㎡(4,745평), 단층 슬라브 350평
- 편도 1차선 지방도 120m 도로점 (매인 3,000평 분할가능)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IC 15분 / 문평IC 5분
-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교회수양관, 체험학습장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 현지 답사후 금액 협의결정

H. 010-3119-6952